

강진군, 딸기 기형·발생 경고

수정별 활동과 연관 높고 저온·저일조에 따라 급격히 발생 병해충 방제 작업시 유의사항 숙지 후 임해야...주의 당부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4일 본격적인 딸기 수확기에 들어간 농민들에게 딸기 기형과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딸기 기형과는 과실의 고유한 형태를 갖지 못하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수확되는 과일을 말하며, 겨울철 수정 불량에 따라 발생한다.

수정 불량은 수정벌의 활동과 연관이 높고 저온과 저일조에 따라 급격히 발생한다.
낮은 온도와 흐린 날씨는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만들어 기형과 발생을 가속시킨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우선 수정벌과 꽃가루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농

장 내 온도를 잘 맞추어 주고, 수정벌 통을 수시로 확인하여 벌 세력이 떨어지면 추가로 벌을 보충해 주고 먹이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병해충 방제 작업시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임해야 한다. 꽃가루 발아를 억제하는 살균제는 피하고 수정벌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딸기꽃의 암술머리에 꽃곰팡이가 발생하면 기형과 발생이 급격하게 확산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므로 예방도 신경 써야 한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매년 이맘때부터 딸기 기형과 발생이 많아져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기형과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농장 관리에 힘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축산 이미지 쇄신에 총력 깨끗한 농장 확대 지정 악취 없는 축산 환경 조성 박차



장흥군은 한우 사육두수 전남 1위 이미지를 '깨끗한 축산농장 전국 1위'를 목표로 하여 축산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쇄신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중에서 일정 규모를 갖춘(소 50두, 돼지 1,000두, 가금류 5,000수 이상) 636개 농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1년차 155호, 2년차 160호, 3년차 167호를 지정하여 3차 년도까지 80%의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1년차 년도로 최근 3년 이내에 신축한 축사와 가축 사육업 허가 농장 155곳을 타깃으로 정한다. 축산사업소 소장을 포함한 팀장들로 2개 읍·면씩 책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상회보와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사 바닥과 가축 분뇨관리 실태, 악취, 축사 외부의 경관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70점 이상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각종 축산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축산사업소에서는 이번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새로이 지정 받은 안양면 김정수 농장 외 7곳을 방문해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이것으로 장흥군의 깨끗한 축산농장은 26농가이다. 축종별로는 한우 19호, 오리 5호, 닭 2호, 연도별로는 '18년도 9호', '19년도 5호', '20년도 12호'이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축산물은 무엇보다 위생적인 관리와 사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및 기타 가축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장흥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땅끝 바다에서 수산업 발전 전기 마련" 명현관 해남군수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부 방문

명현관 해남군수는 5일 화원면에 소재한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부를 방문해 해남군과 연구소간 업무협력과 발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2013년과 2015년 개소한 국립수산물과학원 육종전북보급센터와 해조류연구센터는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수산종자육종연구소로 확대 개편됐다.
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패류 및 해조류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국내 수산종자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명군수는 황미숙 수산종자육종 연구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전복 신품종 종자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협력으로 양식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양식기술 보급과 교육, 양식장 피해 발생 시 합동피해조사 등 두 기관의 긴밀한 업무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산종자연구와 더불어 향후 김 가공 산업 분야로 연구 영역



및 기능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종자개발에서 가공 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김 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명현관 군수는 "조직개편을 통해 수산종자육종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수산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역할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수산업 선진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수산업 5,000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농수산물로, 637여가가 9,607ha의 김 양식장에서 8만톤, 778억원, 전복 양식 290여가가 458ha의 양식장에서 2,700톤, 680억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의회, 제287회 임사회...추경안 의결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는 4일 제287회 임사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집행부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했다.
이번에 제정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목적(1조), 지원 대상(제5조), 지원 방법(제6조)' 등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편성한 코로나19 관련 재난 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며,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궁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직자들은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시의적절(時宜適切)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전 군민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오늘부터 3월 31일 읍·면사무소 신청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에게 설 이전 1명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 5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규태 의장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사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 5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 모두이다.
신청기간인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

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8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모든 군민이 설 명절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주민·단체 참여 '장평 제산 호두장군숲' 조성

장흥군은 장평면 제산리 일원에 주민·단체 참여 숲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 및 JNJ 골프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생활 컴퓨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두장군숲 조성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

민·단체가 직접 사업을 건의하여 민관이 함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지역 특성에 맞게 숲을 조성할 예정으로, 마을 앞 폐도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수목을 재배치하고 장평의 명물인 귀죽호두

나무 및 녹음수를 식재할 계획이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장평 제산 호두장군숲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단체에서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